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은비로·제시로...방송가 싹쓸이



역시 '파격의 아이콘'이다. 가수 제시가 가슴이 깊게 파인 절개선으로 색시함을 강조한 의상을 입고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제시는 가요계와 방송가를 휩쓴 '센 언니'답게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분위기를 압도한다. 제시는 최근 프로젝트 걸그룹 환불원정대의 멤버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일환으로, 가수 엄정화·이효리·화사와 걸그룹으로 뭉쳤다. 제시의 화려한 랩실력이 더욱 돋보이는 신곡 '돈 터치 미'(DON'T TOUCH ME)는 공개한지 9일이 지난 19일 현재까지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지키고 있다. 세 번째 미니음반 '누나(NUNA)'의 타이틀곡 '누난나'로 지난 한 달여간 5위권 내에 머물렀던 저력을 이어가는 셈이다. 예능프로그램 섭외 '러브콜'도 잇따른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식스센스'로는 특유의 솔직한 매력을 뽐내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SBS 디지털 예능 프로그램 '제시의 쇼!터뷰' 진행자에 이어 11월에는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캡틴'의 심사위원으로도 나선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원샷원킬' 손흥민, 역대급 퍼포먼스

웨스트햄전 45초 만에 벼락골·1도움

시즌 초반 7경기서 8골·4도움



토트넘 손흥민(7번)이 19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웨스트햄과 홈경기에서 전반전 키오프 45초 만에 득점한 뒤 동료들의 격한 축하를 받고 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추가골까지 도와 1골·1도움의 만점 활약을 펼쳤다. 유로파리그를 포함한 올 시즌 초반 7경기에서 8골·4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벌써부터 EPL 개인 최다골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 런던 AP뉴스

- 1 EPL 7호 골...통산 60번째 득점
- 2 18골 쏜 전시즌 초반 7경기 2골
- 3 11개 슈팅서 7골 결정력도 최고



한국축구 '부동의 에이스' 손흥민(28·토트넘)이 또 화력을 뽐냈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웨스트햄과 홈경기에서 전반전 키오프 45초 만에 '영혼의 단짝' 해리 케인(잉글랜드)의 어시스트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다. 올 시즌 리그 7호이자 시즌 8호 골로 EPL 통산 60번째 득점이다.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불과 6분 뒤에는 케인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했다. 올 시즌 리그 2호이자 시즌 4호, EPL 통산 35호 도움이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은 각각 1골·1도움씩을 올리며 완벽한 공합을 뽐냈

다. 둘은 통산 27·28번째 골을 합작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웃지 못했다. 전반 16분 케인의 2번째 골에 힘입어 3-0까지 앞섰으나, 후반 막판 10분 동안 3골을 내주고 승점 1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득점의 기쁨보다 이길 경기를 놓친 아쉬움이 훨씬 크다"는 손흥민의 말처럼 3-3 무승부라는 결과는 굉장히 안타깝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의 주축다운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동시에 웨스트햄과 유쾌한 인연도 이어갔다. 이 날까지 리그 컵을 포함해 웨스트햄과 11차례 대결에서 5골·6도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아르헨티나)과 바통 터치한 조세 무리뉴 감독(포르투갈)의 토트넘 사령탑 데뷔전 상대도 웨스트햄이었고, 당시 손흥민은 '무리뉴 시대'의 첫 골을 성공시켰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뒤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EPL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골·1도움을 올린 데 이어 10월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마자 시작된 손흥민의 화려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 유러피언연맹(UEFA)

A) 유로파리그 예선 2경기(1골·2도움)와 EPL 5경기(7골·2도움)에서 무려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이는 유럽 무대에 안착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올 시즌 개막 3경기만인 사우샘프턴전에서 4골을 몰아친 것을 시작으로 손흥민은 폭발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라운드를 누비며 침묵한 경기는 2차례에 불과했다.

18골·12도움을 기록한 지난 시즌에도 초반 7경기에서 2골밖에 뽑지 못했고,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로 프로 커리어에 정점을 찍은 2018~2019시즌에도 총 20골·10도움을 기록했음에도 초반 7경기에서 골 맛을 보지 못했다. 현재의 흐름이라면 2016~2017시즌 기록한 자신의 EPL 시즌 최다골(14골) 경신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놀랍게도 손흥민이 올 시즌 시도한 슈트는 고작 11회에 불과했다. 그 중 유효 슈트 9회였고, 7골이 여기서 터졌다. '원샷 원킬' 절정의 골 감각을 마음껏 발산하는 에이스의 전진에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35세 무관의 골퍼 '코크랙의 인생극장'...PGA투어 데뷔 9년만에, 233번째 도전자 감격 첫 승 ▶ 2면

1879 Golf



1879유틸리티 R&A 공식 인증 기념 체험후기 이벤트 체험단 모집

체험단 가입시 특별 가격제공 (50% OFF)

~~60만원~~ → 30만원

유틸리티구매후 체험 후기 작성시 20만원 상당 캐리어백 제공
1879공식행사 초청및 모니터 요원 기획 제공

기간 : 10.31까지
대상 : 40대 이상 여성
인원 : 100명 한정
문의 : 031.735.1879
1879golf.com



1879 캐리어백
소재 합성피혁(PU)
사이즈 W40cm
D32cm
H55(95)cm
색상 랜덤발송

R&A 인증이란?
영국왕립골프협회
the Royal & Ancient
golf club

1754년 결성 이후 정통성을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R&A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후 영국 클럽들이 R&A
규정을 기반으로 한 규칙을
제정했다.

현재는 골프 규칙과 클럽
디자인 등에 대한 인증 기관
으로 골프공식 프로대회는
R&A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